



우리 성에서 출판한 **빙설** 관련 추천 도서

책 속에서 만나는 '빙설왕국'

빙설 관광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더해짐에 따라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길림성의 빙설에 대해 깊은 흥미를 보이고 있다. 길림성에서는 각종 빙설대회나 빙설축제 활동들을 개최하는 등 방식을 통해 빙설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빙설 관련 서적들을 출판한다든가 빙설 관련 영화작품들을 제작하는 등 방식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빙설문화를 료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 우리 성에서 출판한 빙설 관련 출판물 4종을 추천하려고 한다. 이 출판물들은 문학, 문화와 과학기술 보급 등 여러 측면에서 독자들이 길림성의 빙설문화를 전면적으로 료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길림미술출판사에서 출판한 책 《빙천설지도 금산은산: 길림성 빙설 산업 스키》(冰天雪地也是金山银山: 吉林省冰雪产业掠影)는 길림성 빙설운동의 역사, 빙설문화의 축적 및 빙설산업의 발전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하였다. '제7기 전국 대중 빙설 시즌' 가동식의 성대한 개막을 시작으로 길림성에서 친혜의 빙설 생태자원과 전면 참여 빙설운동의 열정을 조력으로 하여 '동계올림픽은 북경에서, 체험은 길림에서'라는 발전리념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길림성 빙설운동의 전면적인 진흥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함과 더불어 길림성 나아가 전국 빙설운동의 발전이 고봉에 진입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동 스포츠 교류 립체서적 《빙설운동》(冰雪运动)은 길림과학기술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 책은 고산 스키, 스키점프(跳台滑雪), 스노우보드(单板滑雪), 봅슬레이(雪车),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등 스포츠 종목을 각각 소개했다. 종이 예술을 통해 풍부하고도 멋진 스포츠 역할을 보여주어 독자들에게 전례없는 열독 경험을 제공한다. 책페지를 열고 닫는 것으로 동태적인 운동의 진

과정을 나타냈는바 열고 닫는 페지 사이사이로 빙설운동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이는 아이들의 세계를 넓혀주고 천성을 방출시키며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을 튼튼히 하고 개성을 형성시켜주며 또 체육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와 열정을 불러일으켜 심신건강과 전면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생활방식을 보급하고 체육정신을 계승, 발양하며 나아가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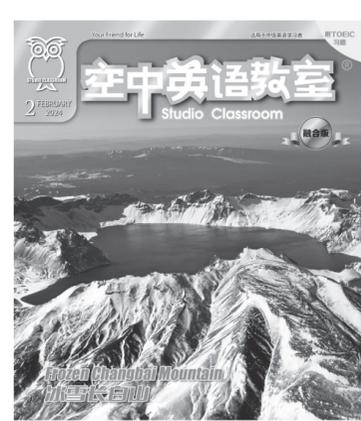


2022년 2월 4일, 북경동계올림픽이 성대히 개막되었다. 북방부녀아동출판사에서 출판한 《빙설세계를 열다》(打开冰雪世界)라는 책도 마침 이때 출판되었다. 이 책은 북경동계올림픽의 열기를 빌어 빙설운동의 기초지식과 동계올림픽의 각종 경기종목을 소개하였고 올림픽 경기장의 웅장한 기세를 전시했으며 중국 빙설선수들

이 용감히 도전하고 꾸준히 분투하는 정신을 보여주었다. 이 책중 근 백개에 달하는 기계장치들의 제작 공정은 모두 사업인들이 수공으로 조립하여 완성했는데 전반 책은 제작이 뛰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공에서도 완벽함을 추구했다. 주요 제작자들은 매끄럽고도 오래도록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의 1년 동안 그 기계장치들을 다듬었다. 또한 이 책은 문자부분에서 정확하고도 생동함을 추구하기 위해 빙설운동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검증하게 했는데 그야말로 정교하게 조각하였다.

이 밖에 길림과학기술출판사에서 주최한 《공중영어교실》(空中英语教室) 잡지사는 자체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종이매체 경로와 융합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길림요소'를 보급하고 량질의 내용으로 고품향 홍보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잡지사는 2023년말부터 '길림요소' 홍보 사업을 시작했으며 잡지에 길림성의 지역풍경, 인문특색, 전통문화 등을 소개하는 새로운 코너를 증설했다. 그중 한기는 장백산 풍경 사진을 표지로 했는데 중점 추천 문장은 편집부의 원작인 <빙설장백산>(冰雪长白山)이다. 사진과 글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이중언어 소개로 광범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잡지사 융합미디어 플랫폼은 2024년부터 잡지 '길림요소' 코너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수한 영어학습 내용들은 독자들이 길림을 료해하고 길림의 독특한 매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인도했으며 이런 '길림요소'를 통해 중국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중화전통문화를 널리 발양하고 있다. 빙설 관련 출판물들은 매 한권의 책들마다 빙설세계로 통하는 창문이라 할 수 있다. 하여 지식을 추구하던 탐험을 좋아하던 또는 심령의 감동을 갈망하던 모두 이 속에서 자신만의 빙설왕국을 찾을 수 있다. / 길림일보



책소개

김동진 동시집 《단풍엽서》



1944년에 흑룡강성 녑안시 동경성진에서 출생한 김동진 시인이 80세 기념으로 동시집 《단풍엽서》를 독자들에게 선물하였다. 2024년 12월에 연변인민출판사에 의해 출판 발행된 동시집은 제 1부 <농사람> (31수), 제 2부 <복슬강아지> (30수), 제 3부 <춤추는 꽃> (23수), 제 4부 <봄비> (30수), 제 5부 <꽃술> (24수), 제 6부 <풀씨> (33수)로 되었는데 총 171수의 동시가 수록되어있다. 김동진 시인의 동시는 어린 독자들의 입에 잘 오르는 시어들로 동심을 잘 그려낸다는 평을 받는데 "시내물처럼 / 맑은 목소리로 / 맑은 노래를 부르면 / 나도 시내물처럼 / 말쑥하게

될 거야" (<시내물처럼>의 1련), "뒤뚱뒤뚱 오리부대 / 놀러 오는 개울물 / 매끌매끌 미꾸라지 / 꼬리치는 개울물" (<개울물>의 1, 2련), "눈이 내리는 겨울이면 / 산과 들과 강은 / 의 좋은 삼형제가 되어 / 싸고싸고 / 한이불 속에서 잡니다" (<의좋은 형제> 전문)와 같이 어린이들의 소박한 언어로 동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번 동시집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83년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학과를 졸업하고 선취하여 중학교 교원, 문화관과 문화국 창작원으로 근무한 김동진 시인은 중국 민족예술가협회 회원, 중국소수민족작가협회 회원, 연변작가협회 회원이며 시집 《두만강 새벽안개》를 비롯하여 수필집, 실험집, 시조집, 동요동시집 등 21권의 저서를 펴냈으며 연변작가협회 문학상, 《연변문학》문학상, 《연변일보》해란강문학상, 연변조선족자치주 진달래문예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김태국기자

고춘양의 미형소설, 중국소설학회 2024년도 '중국 좋은 소설'에 선정



중국소설학회에서 지난 13일에 2024년도 '중국 좋은 소설' (中国好小说) 순위를 발표했는데 길림성 작가 고춘양의 미형소설 작품 <인생, 그 얼마나 되리오> (人生几何)가 심오한 주제와 능란한 필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인생, 그 얼마나 되리오>는 잡지 《천지 미형소설》(天池小小小说) 2024년 제 1호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고춘양은 독특한 서사 시각으로, 심각한 인생철학으로, 인간성에 대한 섬세하고도 미묘한 묘사로 많은 독자와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문단에 한층 빛을 더해주었다. 중국소설학회는 국내의 권위 있는 문학평가

기구인바 올해의 '중국 좋은 소설' 선정의 취지는 시대정신과 예술혁신 및 깊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데 있다. 더불어 <인생, 그 얼마나 되리오>가 수많은 응모작품중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건 고춘양의 문학재능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천지 미형소설》잡지가 우수한 문학작품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방면에서의 예리한 안목과 꾸준한 노력을 반영하였다. 한편 고춘양은 중국작가협회 회원이고 로신문학원 제 17기 고급연구도련반 회원이다. 길림성작가협회 회원이자 연변작가협회 리사이며 둔화시작가협회 부주석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시집, 산문집, 시 합집, 소설집, 장편소설 등 장르가 다양한 다량의 작품들을 창작했으며 작품들이 《중화시가통감》(中华诗词通鉴) 《길림문학작품년설》(吉林文学作品年选), 《중국미형소설열독고》(中国微型小说阅读库) 등 백여종 찬집에 입선된 바 있다. 또한 중국소설학회 2024년도 좋은 소설 순위에 올랐고 제 21기 중국 미형소설 년도상 등 영예를 획득했다. 장편소설 《래일의 무지개》(明日彩虹)는 또 텔레비전 연속극으로 각색되기도 했다. / 김가혜기자

《흑신화: 오공 산서를 만나다》출판 발행

산서 고건축 문화에 초점을 맞춘 도서 《흑신화: 오공 산서를 만나다》가 일진 신화출판사에 의해 출판되고 전국적으로 발행되었다. 이 책은 운강석굴, 진사, 현공사, 소서천, 옥황묘, 비운루 등 29 곳의 산서의 유명 고대 건축을 주축으로 하고 전문가와 학자, 문화명인, 고건축 블로거, 문물 '지킴이', 기자 등 40여명 이야기꾼들의 해석, 잘 알려지지 않은 고건축 이야기, 대량의 정교한 산서 고건축 사

진, 유희 정도를 보조로 하면서 독자들에게 <흑신화: 오공> 게임 배후의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다각도로 산서의 천년의 고건축 미술 선보이고 있다. 이 책은 국가 문화 디지털화 전략을 관철 실시하는 한차례 시도이며 출판계와 게임계의 다분야를 아우르는 한차례 심층적인 협력이다. / 신화사

장백산 총 259 호 2025년 제 1 호

권두언
엽 매 장백산을 동경하다

장백산 특별조명

리진화 세린하 (중편소설)
김홍월 색채로 풀어낸 고향의 감정:
리진화의 소설 <세린하> 분석 (평론)
리진화 강에서 강으로 (작가노트)

장백산 특집 - '갑돌이'와 '갑순이'

박초란 '갑돌이' 찾기 (단편소설)
장편기획연재
리추천 하얀 솔래 (장편소설, 연재 1)
박문봉 동북에서 당의 소수민족 사업에
선두주자로 나선 리진민 (인물전기)
리홍규 붉은 천 한조각 (장편소설, 연재 4)

중단편소설

리다설 금과 (단편소설)

장학규 이모의 천당 (단편소설)
류선희 신호에 걸린 봄 (단편소설)
리병군 귀여운 아이 (단편소설)

장산자 소설코너

장산자 바람의 숲 (단편소설)

수필

전정환 ['50'후] 그 때 그 시절 내 고향은
리홍매 ['60'후] 그 때 그 일들 -
우리는 늘 최선이였다
주향숙 ['70'후] 그 때 그 일, 아름답다
리은실 ['80'후] 응답하라! 새천년 -
그 때 그런 일도 있었어?
림연춘 ['90'후] 그 때 그 일들,
그 사람들이 그렇다...
서정순 멋짐과 편함 사이
장송심 다리를 바라보며
정해선 엄마의 꼬랑매기

시

심명주 가장 큰 시 (외 5수)
김정권 익모초 (외 2수)
림금산 태산에 올라 구름 밟고서 (외 1수)
김동진 약속 대로 오는 봄 (외 1수)
오경희 산다는 건 (외 1수)
시 목 단풍나무
전지현 그러나 나는 일방통행

번역작품

김인순 (리별 읍집) 백색맹호 (단편소설)

장백산 루게 259

칼라 4 김화 사진 & 김인덕 시 서광
(사진과 시)
칼라9 엽매 장백산을 동경하다 (권두언 원문)
장 광 표지그림

《长白山》2025年第一期电子版已上线!
《장백산》2025년 제1호 전자잡지 출시!



支持整市购买或单篇购买。

→点击图片购买专栏,或在专栏目录中选择您想阅读的文章点击购买内容,支持您喜欢的作者!

→购买后,可添加至我的收藏,以便随时查阅。

点击右上角... → 收藏